

##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기저율효과: 도식의 역할\*

고재홍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언제 사회적 판단에서 기저율이 사용되고 언제 기저율이 사용되지 않는지를 주어진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로서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회적 판단에 대한 가상적 통로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즉 주어진 정보가 판단도식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기저율이 사회적 판단에 사용되지 않으나 판단에 대한 확신은 높을 것이며, 반대로 주어진 정보가 도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판단에서 기저율이 사용되지만 판단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낮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험 1에서는 정보들간의 일치-불일치로서 주어진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를 조작하였다. 실험 2와 3에서는 Reeder와 Brewer(1979)의 귀인도식을 근거로 하여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를 조작한 다음 판단에서 기저율이 사용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이들 3개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정보와 도식간에 부합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만 판단시 기저율이 사용됨을 보여주어, 사회적 판단에 대한 가상적 통로모형을 지지하였다. 끝으로 실험들의 결과를 기존연구들과 비교하였고, 그 제한점들을 논의했다.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하에서 귀인할 때나 또는 판단할 때 합의성 정보(consensus information) 또는 기저율(base-rate)을 사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Borgida & Brekke, 1981 참조). 기저율에 관한 연구들의 근원은 귀인론 현에서 찾을 수 있다.

Kelley(1973)의 공변모형(covariation model)에 따르면, 원인에 대한 설명은 특이성 정보와 일치성 정보뿐만 아니라 합의성 정보(다른 사람들이 같은

자극에게 보인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합의성 정보는 원인귀착(causal attribution)에서 특히 행위자의 특성(능력, 성격...등)에 대한 추론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예: McArthur, 1972, 1976). 원인의 탐색에서 합의성 정보의 사용이 적은 예와 같은 현상들이 귀인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판단에서도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판단시에 나타나는 기저율 오류이다(Bar-Hillel, 1980).

기저율이란 표적인물(혹은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표본내의 특정 사회적 범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이다. Kahneman과 Tversky

\* 본 연구에 대해 많은 토의와 지적을 해주신 차재호 선생님과 서울대 사회심리연구소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73)는 특정 표적인물에 대한 판단이나 예언시에, 상황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판단이나 예언의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규범적인 통계적자료를 따르지 않고, 몇가지 휴리스틱(heuristics)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피험자들은 어떤 범주(예: 법률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에서 나타나 있는 특성간의 유사성에 따라 표적인물의 범주를 판단하였다. 사람들이 판단시에 이러한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자동적이며 비의식적이다. Kahneman 등(1973)이 "직관적 예언은 대표성에 의해 지배되고 사건확률에는 비효적 둔감하다"(p. 241)라고 밝힌 바와 같이, 특정 판단은 그에 관련된 사회적 범주(혹은 고정관념)의 중요한 세부특징들(features)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것이 비합리적(irrational)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휴리스틱은 인간의 제한된 인지용량 때문에, 혹은 인간의 인지적 구조의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단순한 인지적 전략이라 볼 수 있다(Ginosar & Trope, 1980).

휴리스틱은 다른 인지적 전략(예: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도식)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오류를 가져온다. 한 예로서, 하찮은(worthless) 세부정보만 주어진 경우라도 판단에서 사건확률은 무시되었고, 기저율이 극단적인 경우(예: 99%와 1%)에도 사건확률은 무시되었다(Lyon & Slovic, 1976). 즉 사람들은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도 특정 과제의 확률판단시에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s)에 너무 의존하여 판단했다. 이러한 경향성을 Bar-Hillel(1980)은 기저율오류(base-rate fallacy)라고 불렀다. 이말은 "여러 귀인이나 예언 과제들에서 사람들이 기저율보다는 개별정보들(individuating informations)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성"(Borgidar & Brekke, 1981, p. 65)이라고 정의된다. Kahneman 등(1973)의 대표성 역할에 대한 기본 가정은, 판단해야 할 표적인물에 대한 개별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대되는 결과가 그 정보의 대표성 정도(예를 들어 그 정보가 얼마나 대표적인 법률가

를 기술하고 있는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을 때, 판단의 결과는 주어진 정보의 대표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 사건 확률분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판단은 거의 전적으로 개별 정보의 대표성에 의해 이뤄졌고, 기저율을 포함한 다른 정보들은 거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사회적 판단에서 기저율이 무시된다는 증거는 많다(예: Ajzen, 1977; Bar-Hillel, 1980; Borgida & Brekke, 1981; Lyon & Slovic, 1976).

확률판단시에 기저율이 무시되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들이 있다. Kahneman 등(1973)은 사람들이 개별 정보가 특정 범주(예: 법률가)의 고정관념에 얼마나 대표적(representative)인가 혹은 유사(similar)한가에 따라 표적인물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Nisbett와 Borgida(1975), Nisbett, Borgida, Crandall, 및 Reed (1976)는 기저율의 무시현상은 행동예언, 특성추론, 원인귀속 등 여러 사회적 판단과제에서도 나타남을 보고했다. 이들은 기저율이 확률판단시에 무시되는 이유는, 기저율은 다른 통계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보다 멀고, 흐릿(pallid), 추상적인 반면에 개별 정보는 생생하며, 특출나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jzen(1977)과 Tversky와 Kahneman(1980)은 기저율이 판단시에 무시되는 이유를 인과성 지각의 결과때문으로 해석했다. 특히 Ajzen(1977)은 인과성 휴리스틱(causality heuristics)이란 개념으로서 기저율이 무시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인과성 휴리스틱이란 기저율이나 개별 정보가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판단자가 지금 내려야 하는 판단에 그 정보가 어느 정도나 인과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으로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판단자들에게 기저율은 한 개인을 기술자로 혹은 법률가로 만드는 원인으로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판단에서 무시되는 것이고, 반대로 판단자들이 성격과 직업간의 연결에 대한 도식(혹은 내면적 성격이론)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개별 정보는 그의 직업에 대한 인과적 단서로 지각되기 때문에 판단자들은 특정 개인에 대한 직업의 판단에 이와 같은 개별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몇몇 연구들(예: Ajzen, 1977; Ginosar & Trope, 1980)은 특정 조건(연구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하에서는 기저율이 확률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특정 조건하에서는 사람들이 확률판단시에 기저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표적인물이 속한 사회적 범주의 유사성을 높임으로써 범주들간의 차이를 떨어뜨리던 판단시에 기저율이 사용된다(예: Ginosar et al., 1980). Ginosar 등(1980)은 표적인물이 속하게 될 범주들을 전기 기술자와 항공 기술자로서 유사하게 하여 표적인물이 이 중 어느 한 집단(예: 전기 기술자)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게 한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대표성 휴리스틱에 따른 확률판단을 하지 않고 기저율에 따른 확률판단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번째 유형은 개별 정보들내의 세부 정보들간에 불일치를 조작함으로써 판단이 개별 정보의 대표성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예: Ginosar et al., 1980; Zukerman, 1981). Ginosar 등(1980)의 연구에서처럼, 표적인물이 법률가의 특성(예: 자기 주장적이다)과 기술자의 특성(예: 조심성이 있다)을 모두 지닌 것으로 조작한 경우에는 그 표적인물이 어느 한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토록 했을 때 기저율을 고려하여 판단했다.

세번째 유형은 피험자들의 고정관념과 제시된 통계적 자료(기저율)가 불일치하도록 조작한 경우이다(이석재, 1987). 이석재(1987)는 고정관념과 기저율간의 일치 - 불일치를 조작하여 기저율이 판단에 사용되는 조건들을 알아 보았다. 그는 아들이 없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여기서는 이것이 기저율 정보임)을 조작하여, 표적인물(찬성지향적 인

물, 반대지향적 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할 확률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들이 없는 주부는 가족계획에 반대할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부들의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일치할 때는, 고기저율(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20:80인 조건)과 저기저율(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40:60인 조건)에 따라 표적인물의 태도추정 확률치들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기저율이 불일치하는 경우, 즉 조사결과 가족계획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많은 조건은 고기저율 조건(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60:40인 조건)의 피험자들이 저기저율 조건(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80:20인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표적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정관념과 기저율이 다른 경우에는 기저율이 판단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석재(1987)의 연구는 기저율과 고정관념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표적인물의 태도에 대한 확률판단에서 기저율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Kahneman 등(1973)의 대표성 휴리스틱에 따른 기저율 오류가 나타나는 조건과 오히려 기저율이 사용되는 조건들을 구분하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들은 각자 구체적인 조건들은 언급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모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판단에 사용되는 설리적 기저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인물의 특성(혹은 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기저율사용의 여부는, 그에 관한 개별 정보와 피험자가 지닌 판단범주에 대한 도식(혹은 script)이 부합(correspondence)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이러한 부합여부는 자신의 판단결과에 대한 주관적 확신의 정도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가상적인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위의 모형에 따르면, 이전에 기저율이 사용되는 조건들을 구명한 연구들의 결과가 같은 모형에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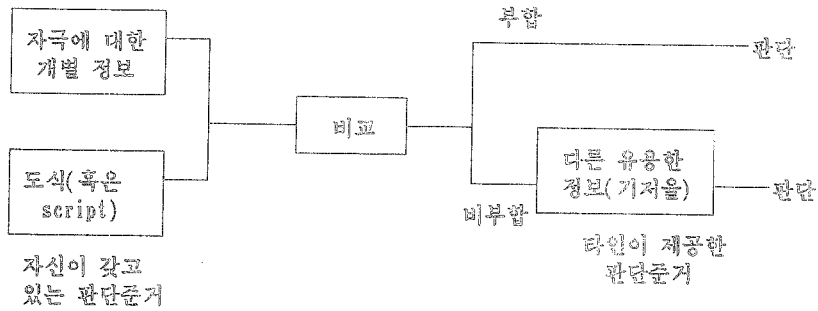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판단이 이뤄지는 가상적 경로모형

명별 수 있다. Ginosar 등(1980)의 연구에서 불일치 정보 조건(이를 들어, 포적인물이 기술자에 적합한 특성과 범용기에 적합한 특성을 모두 지닌 것으로 기술된 조건)은 자극에 대한 개별 정보와 도식간의 비교를 어떻게 만든 조건이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무관정보 조건(이를 들어 포적인물에 관한 정보가 판단범주와는 무관한 정보인 조건)이나 Kahneman 등(1973)의 연구에서 무정보 조건은, 자극에 대한 개별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개별 정보와 도식간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들 모두는 자극에 대한 개별 정보를 조작한 것이 공통적이다. 이석재(1987)의 연구는 도식과 기저율을 불일치하도록 조작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준거와 타인이 제공한 판단준거 간에 갈등이 유발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위의 모형은 Ginosar 등(1980)의 연구에서 보인 확률판단에 대한 확신도 평정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의 결과에서는 불일치정보 조건과 무관정보조건이 일치정보 조건에 비해 판단에서 기저율을 사용하지만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도는 낮았다. 기저율은 통계적(재판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여 내린 판단은 오히려 확신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Ginosar 등은 확신도 평정결과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도 평정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제공한 판단준거를 사용할 때 보다는 자신이 경험적으로 형성

한 자신의 판단준거인 도식을 사용했을 때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기재일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위의 가상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1에서는 Ginosar 등(1980)의 연구에서 처럼 판단자극에 대한 개별 정보들간의 불일치를 조작하여 개별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을 방해하였다. 그런 다음 이경우에 기저율이 판단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와 아울러 판단에 대한 확신도 평정을 알아 보았다. 실험2와 3에서는 개별 정보내에서의 불일치는 없으나 도식과 부합되는 정보와 부합되지 않는 정보를 사용하여 정보와 도식간의 비교를 방해하였다. 그런 다음 이런 경우 기저율이 사용되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조작이 판단에 대한 주관적 확신정도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알아 보았다.

## 실험 1

### 방법 및 절차

#### 피험자

실험 1에 참여한 피험자는 정남대에 재학중인 학생 102명이었다.

## 질문지 및 독립변인의 조작

실험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뤄졌다. 질문지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에서는 실험지시와 독립변인의 조작이 포함되어 있었고 2-3편은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한 것이었다. 독립변인은 (1)기저율 (4 조건), (2)포적인물 지향(3조건)이었다. 이 중 기저율은 점단간 변인이었고, 포적인물 지향은 반복측정된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실험설계는 4 X 3 split plot 요인설계이었다. 기저율은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조사'에 참여한 주부 225명의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조작하여 제시했다. 기저율은 4조건으로 조사결과의 반대기저율이 75.5%(찬성은 24.5%), 55.5%, 44.5%, 24.5%로 조작했다. 포적인물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지향은 3조건으로, 이석재(1987)가 사용한 포적인물들(찬성지향, 중립지향,

반대지향)을 그대로 사용했다. 즉 찬성지향적인물(1명)은 가족계획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반대지향적 인물(1명)은 가족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고, 중립지향 인물(2명)은 가족계획에 찬성하는 속성과 반대하는 속성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모두 3가지였다. 첫째는 확률추정치로, 소개된 포적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했던 사람일 확률을 11점 척도(0%-100%)상에 추정하도록 했다. 단, 중립지향인물은 2명이었기 때문에 두 판단확률의 평균치를 구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물음은

### 찬성지향인물

\* 민선홍씨는 대학을 마치고 교사로 근무하다 결혼하였다. 가정생활은 중상 정도로 아직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대가족 보다는 핵가족의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피임에 찬성하였고, 자녀출산에 대해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응답하였다.

### 중립지향인물

\* 허명화씨는 결혼하기전에 가정생활이 몹시 어려워 주간에는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 여장을 다녔었다. 결혼 후에도 생활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공유산이나 피임에 찬성하였고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을 때보다 남대하기가 좀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 반대지향인물

\* 이소양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하였다. 경제적인 수준은 중이하로 부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피임이나 인공유산에는 반대입장을 보였고, 자녀의 출산에 대해서는 임신한 아이가 딸일까봐 매우 걱정이 된다고 고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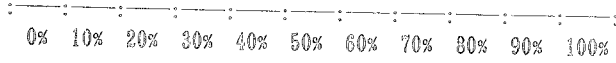
### 중립지향인물

\* 김선화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뒤에 결혼하였다. 그녀는 자매가 많은 집에서 복잡하게 살아서 인지 이젠 식구가 적은데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찬성하였고, 오히려 피임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자녀의 출산에 대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남편이 실망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다음과 같다.

두번째 중속변인은 피험자 자신의 판단에 대한 주

"000가 처음 면접했을 때, 가족계획에 반대했던 사람일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에 'V'표 하여 주십시오(예: : √ :)"



관적 확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에게 각 포적인물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판단을 내리도록 한 후, 그 판단에 대한 자신의 확신정도를 역시 11점 척도(0%-100%)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세번째 중속변인은 포적인물의 행동의도에 대한 판단이었다. 포적인물의 행동의도에 대한 추정치를 측정하기 위해 "위의 주부가 이후에 자녀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절대로 아닐 것(0)-절대로 그럴 것(10)의 11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는 것입니다. 이 연구도 이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의 조사에 참여했던 한 주부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가족계획에 찬성 또는 반대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조사에서 만났던 사람들중에서 무작위로 4명을 선발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정보들을 잘 읽으시고 이들 각각이 처음 개별 면접했을 때, 가족계획에 찬성한 사람인지 혹은 반대할 사람인지를 추측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 차

사전에 가족계획에 대한 주부들의 조사결과와 찬성과 반대비율을 조작하여 작성된 4종류의 질문지를 무작위로 잘 섞은 다음, 강의실에서 피험자에게 배부했다. 질문지 첫 장에 제시된 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지시문은 가족계획 반대기저율이 가장 높은(75.5%) 조건이다. 질문지의 2-3번째 장에는 4명의 포적인물 각각에 대해 소개하고 중속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물음들이 담겨 있었다.

### 결과 및 논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심리학과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증가와 가족계획>에 대한 주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학기에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면접대상자는 주부 225명이었습니다. 가족 계획에 대한 이들 조사대상자의 응답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자비율	가족계획	
	찬성	반대
24.5%		75.5%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주부들은 가족계획에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면접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떤 주부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

#### 확률추정치

기저율과 포적인물지향에 따라 포적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했던 사람일 확률추정치의 평균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여기서 찬성지향인물과 반대지향인물은 각각 1명이었지만 중립지향인물의 경우는 2명에 대한 판단치의 평균을 구하여 원점수로 사용했다.

포적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할 확률추정치를 기저율과 포적인물지향에 따라 변량분석 결과, 포적인물지향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99.54$ ,  $df=2/196$ ,  $p<.001$ ). 이는 포적인물의 지향에 따라 포적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할 확률추정치가 다름을 의미한다. 즉 반대정도의 순서는 찬성지향인물(28.04%), 중립

표 1. 기저울과 표적인물지향에 따른 표적인물의 가족계획반대 확률추정치 평균

반대기저울/ 표적인물지향	찬성지향	중립지향	반대지향
상상(75.5%) n=25	20.00(15.28)*	52.00(12.67)	68.80(27.89)
상하(55.5%) n=26	35.77(25.01)	48.65(15.53)	69.23(23.48)
하상(44.5%) n=27	31.85(20.58)	44.26(14.26)	60.74(26.15)
하하(24.5%) n=24	23.38(17.40)	40.01(15.49)	68.75(26.10)
전 체 (N=102)	28.04(17.40)	46.27(15.49)	66.75(25.80)

\* 수치는 표적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했던 사람일 확률을 0%-100%상에 평정한 값임.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지향인물(46.27%), 반대지향인물(66.75%)의 순이었다(또든  $p < .001$ ). 이 결과는 표적인물지향 변인의 조각이 제대로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기저울과 표적인물지향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2.24$ ,  $df=6/196$ ,  $p < .04$ ).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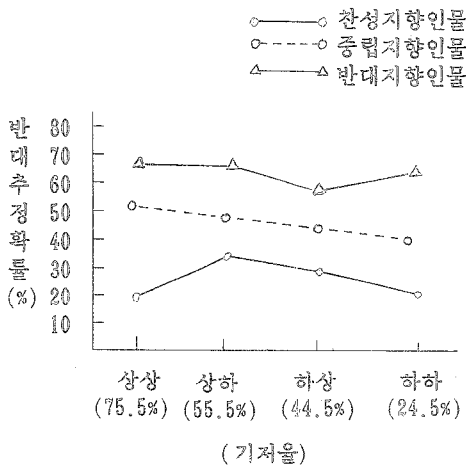


그림 2. 기저울과 표적인물지향에 따른 가족계획반대 추정확률

기저울과 표적인물지향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시 단순 주효과검증을 한 결과, 그림 2에서 보듯, 중립지향인물의 경우에는 기저울이 낮아 짐에 따라 표적인물이 가족계획에 반대할 확률이 낮아졌다( $F=$

2.97,  $df=3/96$ ,  $p < .04$ ). 그러나 찬성지향인물과 반대지향인물의 경우에는 기저울에 따른 체계적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는 중립지향인물과 같이 애매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기저울이 판단추정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찬성지향인물이나 반대지향인물과 같이 비교적 분명한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는 판단시에 기저울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확신도 평정

조건별로 피험자들이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표적인물의 태도지향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했다( $F=3.85$ ,  $df=2/196$ ,  $p < .03$ ). 이를 다시 단순 주효과 검증한 결과, 찬성지향인물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 ( $M=70.1$ )와 반대지향인물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 ( $M=72.3$ )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F < 1.0$ ), 두 조건 모두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들은 중립지향인물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 $M=67.1$ )보다 높았다(각각  $F=2.78$ ,  $df=1/101$ ,  $p < .09$ ;  $F=8.69$ ,  $df=1/101$ ,  $p < .01$ ). 찬성지향인물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와 중립지향인물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간에는 경계적인 유의한 차이만이 있긴 했으나, 애매한 중립지향인물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가 찬성지향인물과 반대지향인물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보다 낮은 것은 Ginosar 등(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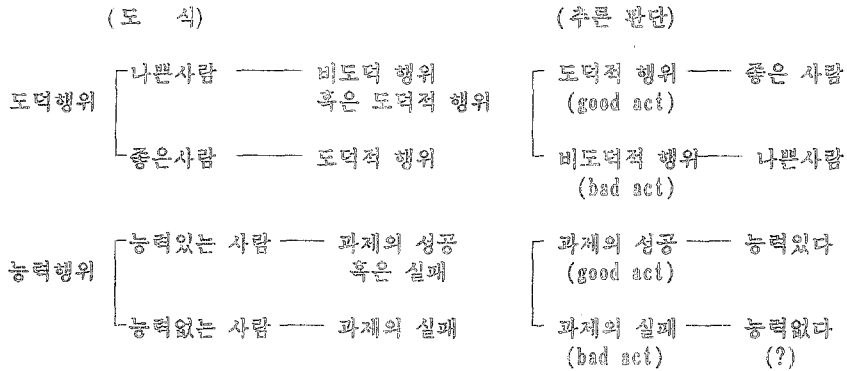


그림 3. 실험 2와 3에서 가정한 판단도식과 추론 결과

**행동의도 추정:**

조건별 표적인물의 행동의도에 대한 추정치의 결과는 표적인물의 가족제외 반대태도의 추정확률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표적인물의 태도지향에 따른 행동의도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33.15$ ,  $df=2/196$ ,  $p<.001$ ). 이는 찬성지향인물( $M=5.34$ ), 중립지향인물( $M=6.26$ ), 반대지향인물( $M=7.63$ )의 순서로 표적인물이 이후에 자녀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모든  $ps<.001$ ). 그러나 기저율에 관련된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도식이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분명하지 못한 경우를 조작하기 위해 여기서는 두가지 행위를 사용했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은 Reeder와 Brewer(1979)가 구분한 3종류의 귀인도식 중 그림 4에서 제시된 위계제한적 도식(hierachically restrictive schema)에서 유추한 것이다. 위계제한적 도식은 기술이나 능력의 귀인에 주로 해당되고 정적성과 같은 특성의 귀인에도 잘 적용된다(차재호, 1986). 이 도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실험 2와 3<sup>1</sup>**

사회적 판단에서 휴리스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도식(예: 내현적 성격이론, 귀인도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도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개별 정보와 도식간에 부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기저율이 판단에 사용될 것이다. 실험 2와 3은 이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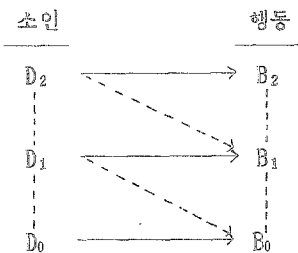


그림 4. 위계제한적 도식(출처, Reeder & Brewer, 1979) (참자 0, 1, 2는 각각 행동 혹은 소인의 낮은, 중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위의 그림 4에서 보듯 소인 D<sub>2</sub> 를 지닌 사람은 행동수준에서 B<sub>2</sub> 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sub>1</sub> 을 행하는 때가 있다. 즉 소인의 상위부분(D<sub>2</sub>)에서는

<sup>1</sup> 실험 2와 3은 필자가 1988 년 한국심리학회에서 주최한 인자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행동상의 제약이 없으나, 하위부분(D0)에서는 행동상의 제약이 있다. 이는 소인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향이 수평이나 그 아래 수준으로 갈 수 있으나 위 수준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위계제한적 도식을 소인수론에 이용할 때는 위의 그림 4에서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하면 된다. 즉 B<sub>2</sub>를 관찰했을 때 우리는 D<sub>2</sub>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B<sub>1</sub>이나 B<sub>0</sub>를 관찰했을 때는 D에 대한 추론이 어렵다. 왜냐하면 B<sub>1</sub>은 D<sub>1</sub>과 D<sub>2</sub>로, B<sub>0</sub>는 D<sub>0</sub>와 D<sub>1</sub>으로 모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실력과 비슷한 성적을 내는 일이 많지만 혹시 실수가 있으면 성적이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D<sub>0</sub>)의 성적이 좋기는 힘들다.

위의 그림 3에서 표적인물이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정보(그림 4의 B<sub>2</sub>에 해당)는 그를 "나쁜 사람"으로 추정하는 데 있어 비교적 잘 부합되는 정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만이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정보(그림 4의 B<sub>0</sub>에 해당)는 그를 "좋은 사람"으로 추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도 좋은 행위를 한다는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표적인물이 어떤 과제에서 성공했다는 정보는 그를 "능력있다"로 추정하는데 있어 잘 부합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표적인물이 그과제에서 실패했다는 정보는 그를 "능력없다"로 추정하는 데는 애매한 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도덕행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시에 기저율이 사용될 것이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시에는 기저율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행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과제의 실패에 대한 판단시에 기저율이 사용될 것이고, 과제의 성공에 대한 판단시에는 기저율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

이 낮을 것이다.

## 실험 2

### 방법 및 절차

#### 피험자

실험 2에 참석한 피험자는 경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 96명이었다.

#### 독립변인의 조작

독립변인은 기저율과 행위내용이었다.

(1) 기저율은 고기저율(75%)과 저기저율(25%)이었다. 고기저율은 행위자가 행한 그행위를 많은 다른 사람들(75%)도 행하는 보편적인 행위로 조작하였다. 저기저율은 행위자가 행한 그행위를 소수(25%)의 다른 사람들만이 행하는 특이한 행위로 조작하였다. (2) 행위내용은 도덕적 행위와 비도덕적 행위이었다. 행위내용은 "졸업시험에서의 권닝여부"로서 행위자가 권닝을 한 경우는 "비도덕적 행위"로 행위자가 권닝하지 않은 경우는 "도덕적 행위"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예는 다음과 같다.

"김영숙은 K대학교 졸업반 학생이다. 그녀는 지난 달에 졸업의 관문인 졸업시험을 치렀다. 그녀의 졸업시험은 우연히 감독이 없는 시험이었다. 그녀는 열학생의 답안지를 권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그녀는 권닝을 하였다. 그녀는 졸업시험에 합격했다. 그녀의 행동은 특이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K대학교에서 실시된, 개인적 비밀이 보장된 한 조사에 의하면 졸업반 학생은 25%정도만이 들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 시험에서 권닝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예는 "비도덕적 행위" 조건이며 "저기 저율" 조건이다.

#### 절차

## 결 과

피험자에게 기저율과 행위내용이 조작된 4종류의 질문지를 무작위로 섞어서 나눠 준 다음, 지시문에 따라 제시된 정보를 잘 읽고 응답하도록 했다. 질문지는 지시문, 표적인들의 행위에 관한 정보, 기저율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의 판단추론을 알아 볼 수 있는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한 물음의 순서였다. 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들로서 특정 행동이나 사람에 대해 어떻게 판단내리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읽으시고, 다음의 물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정도로 해당하는 수치위에 "V"표 해 주십시오(예: --- $\sqrt{\quad}$ ---)".

###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모두 2가지였다. 첫번째 종속변인은 행위자의 특성(혹은 능력)에 대한 추정을 11점 척도(매우 나쁜 사람 - 매우 좋은 사람) 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두번째 종속변인은 자신의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11점 척도(0%-100%) 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 실험설계

실험설계는 기저율(25%, 75%)과 행위내용(도덕적, 비도덕적)의 2 X 2 요인설계(factorial design)이었다.

표 2. 기저율과 행위내용에 따른 판단추정치의 평균 (괄호안은 표준편차)

기저율/행위내용	도덕적 행위	비도덕적 행위
고기저율	6.78(1.98)	2.88(1.30)
저기저율	8.38(1.24)	3.17(1.86)

○ 수치는 행위자의 행위내용을 매우 나쁜 행위(0) - 매우 좋은 행위(10)의 11점 척도상에서 평정한 값임.

### 행위에 대한 판단

기저율과 행위내용에 따른 표적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행위에 대한 판단결과를 변량분석한 결과, 기저율과 행위내용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5.78$ ,  $df=1/92$ ,  $p<.06$ ). 이를 다시 단순 주효과검증을 한 결과 도덕적 행위(천닝하지 않았다)의 경우는 저기저율 조건( $M=8.38$ )이 고기저율 조건( $M=6.79$ )보다 그 행위를 더 좋은 행위로 판단했다( $F=11.02$ ,  $df=1/46$ ,  $p<.01$ ). 그러나 비도덕적 행위(천닝하였다)에서는 고기저율 조건( $M=2.88$ )과 저기저율 조건( $M=3.17$ )간에 판단추정치의 차이가 없었다( $F<1.0$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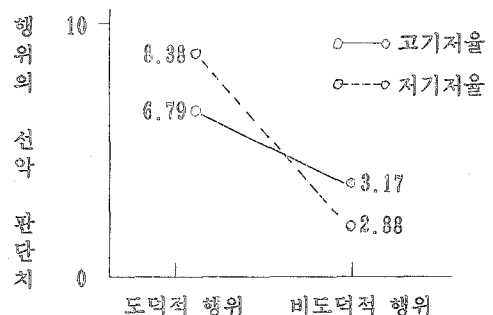


그림 5. 기저율과 행위내용에 따른 표적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치

###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도

피험자들이 표적인들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결과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를 각 조건별로 알아 보았다. 그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다.

각 조건별로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변량분석한 결과, 행위내용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6.60$ ,  $df=1/92$ ,  $p<.01$ ). 이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의 확신도( $M=70.2$ )보다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확신도( $M=62.1$ )가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

표 3. 기저율과 행위내용에 따른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도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기저율/행위내용	도덕적 행위	비도덕적 행위
고기저율	65.4*(10.8)	81.3(11.5)
저기저율	75.0 (17.9)	82.9(10.8)
전 체	70.2 (17.3)	82.1(11.1)

\* 수치는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0%-100%상에 평정한 값임.

위내용의 주효과 이외에는 다른 효과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주어진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이 쉽게 이뤄진 경우(여기서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는 피험자들이 판단시에 기저율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은 높다. 그러나 정보와 도식간에 부합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여기서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판단시에 기저율이 사용되고, 또한 자신의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실험 3

실험 3은 다음의 두가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는 실험 2의 결과에서 보듯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에 따라 기저율의 사용여부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가 다른 행위유형에서 반복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 목적은 실험 2의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 2에서 비도덕적 행위는 판단자의 도식과 부합되는 정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행위가 평가적으로 "부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부정적 정보가 지닌 정보의 함축성(implication)이 긍정적 정보나 중립적 정보의 그것에 비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 정보를 다른 정보보다 더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긍정적 정보나 중립적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보다 부정적 정보를 근거로한 판단의 결과를 더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Hamilton & Zanna, 1972).

실험 3에서는 실험 2의 판단과 확신도 평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부정적(negative)" 행위와 "긍정적(positive)" 행위의 차이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의 차이 때문에 나온 차이임을 밝히기 위해서 실험 2와는 다른 행위내용을 선택했다. 여기서는 부정적 정보가 도식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선택했다. 즉, 능력행위로서 과제에 대한 실패 혹은 성공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림 3의 아래쪽에서 보듯 과제에 대한 "실패" 정보(그림 4의 B<sub>0</sub> 에 해당)는 도식과 분명한 부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제의 실패는 능력있는 사람과 능력없는 사람이 모두 범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어떤 과제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행위자를 무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반대로 과제에 대한 "성공" 정보(그림 4의 B<sub>2</sub> 에 해당)는 도식과 부합되는 정보이다. 왜냐하면 과제의 성공은 능력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어떤 과제에 성공했다면 그 행위자를 능력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쉽다. 실험 3은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방법 및 절차

#### 피험자

피험자는 경남대학교 재학중인 남녀 학생 93명이었다.

#### 독립변인의 조작

독립변인은 실험 2와 마찬가지로 기저율과 행위내용이었다. 행위내용은 운전 면허시험에서의 합격(과제의 성공)과 불합격(과제의 실패)으로 조작되었다. 조작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과영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7월에 틀리는대로 운전학원을 다녔다. 그녀는 첫번째 운전 시험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들중 첫번째 시험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 75% 정도이다.”

위의 예는 “실패” 조건이며 “고기저울” 조건이다.

### 절 차

실험 2와 동일하다.

###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2가지였다.

- (1) 행위자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11점 척도(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 (2) 1번 물음에 대한 자신의 판단결과와 확신정도를 11점 척도(0%-100%)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 실험설계

실험설계는 기저울(고, 저)과 행위내용(성공, 실패)의 2 X 2요인설계였다.

## 결 과

### 표적인들의 능력에 대한 판단

기저울과 행위내용에 따른 표적인들의 능력에 대한 판단추정치의 평균은 표 4와 같다.

기저울과 행위내용에 따른 피험자의 능력판단 추정치를 변량분석한 결과, 두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15.16$ ,  $df=1/89$ ,  $p<.001$ ). 이를 다시 단순 주효과검정한 결과 성공행위의 경우에는 고기저울 조건( $M=7.27$ )과 저기저울 조건( $M=7.38$ )간에 행위자의 능력판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 $F<1.0$ ), 실패행위의 경우에는 능력판단에서 저기저울 조건( $M=3.27$ )이 고기저울 조건( $M=5.28$ )에 비해 행위자의 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F=22.26$ ,

표 4. 기저울과 행위내용에 따른 능력추정치의 평균 (괄호안은 표준편차)

기저울/행위내용	성공행위	실패행위
고기저울	7.27*(1.03) n=22	5.28(1.57) n=25
저기저울	7.38 (1.21) n=24	3.27(1.36) n=22
전 체	7.33 (1.12)	4.34(1.76)

\* 수치는 행위자의 능력을 매우 나쁘다(0) - 매우 좋다(10)의 11점 척도상에서 평정한 값임.

$df=1/89$ ,  $p<.01$ ). 이는 실험 2의 결과가 반복된 것이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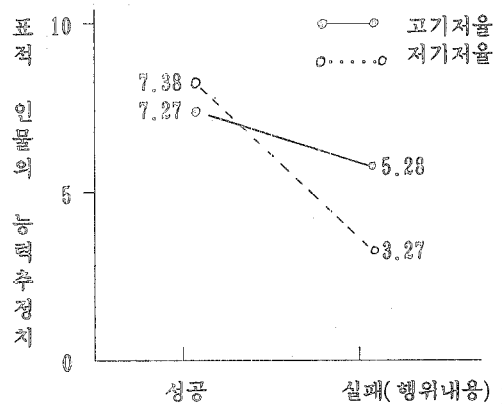


그림 6. 기저울과 행위내용에 따른 표적인들의 능력추정치

### 확신도 평정

조건별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평정치를 변량분석한 결과, 행위내용에서 성공조건( $M=76.3$ )이 실패조건( $M=71.3$ )에 비해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했다( $p<.16$ ). 다른 변인들의 효과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실험 2에서는 주어진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에 따라 기저울이 사회적 판단(여기서는 행위자의 도덕

성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다. 즉 주어진 정보와 도식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도식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자들은 기저율과 같은 부가적인 판단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도덕적 행위(여기서는 시험에서 권장을 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는 기저율이 행위자의 도덕성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입증되었다. 또한 판단자의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평정에서도 정보와 도식이 부합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의 경우가 정보와 도식이 부합되지 않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기저율과 같은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보다는 자신이 경험적으로 형성한 도식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을 더 확신한다는 증거이다. 판단에 대한 주관적 확신은 앞으로 측면하게 될 수 많은 애매한 상황 하에서의 판단을 가능케 하고, 더우기 그러한 판단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 주는 심리적 기제일 것이다.

실험 3은 실험 2의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 반복하려는 목적과 실험 2의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의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2의 결과가 사람들은 평가적으로 긍정적인 정보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더 극단적으로 하고 그 판단에 대한 신뢰성도 더 크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대안적 설명이 가능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험 3에서는 부정적 행위이면서 정보와 도식이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선택하여 이때 기저율이 판단에 사용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그 행위가 운전면허시험에서의 불합격이었다.

그러나 실험 3의 결과도 역시 평가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행위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에 따라 기저율의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보와 도식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여기서는 운전면허시험의 불합격)에는 행위자의 능력판단에서 기저율이 사용 되었으나, 둘이

부합된 경우(운전면허 시험의 합격)에는 행위자의 능력판단에서 기저율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2의 결과와는 달리 판단에 대한 확신도 평정은 두조건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결과로 볼 때 실험 2에서 정보와 도식이 부합된 경우가 부합되지 않은 경우보다 판단에 대한 확신이 높았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그 경우가 "부합"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Hamilton 등(1972)이 주장하듯, 평가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산되어 판단결과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2와 3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문제는 사용된 주요 종속변인이 행위자의 속성이나 능력의 추정이었다는 점이다. 원래 기저율의 사용여부를 다루는 연구들의 종속변인은 대부분 "확률 추정"이다. 이 문제는 종합논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종합논의

실험 1에서는 자극인물에 대한 개별정보들간의 불일치를 조작하여 판단자의 도식과 정보가 부합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방해했다. 그 결과 판단자들은 자극인물의 태도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자신의 도식뿐만 아니라) 기저율을 사용한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개별정보들간의 불일치가 없는 조건에서는 판단자들은 기저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치 자극인물(중립지향인물)에 대한 판단보다도 판단의 확신정도는 더 높았다. 이 경우는 판단자들이 판단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식을 판단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그러나 불일치조건의 경우에 판단시 기저율을 사용한다는 증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긴 했으나( $p < .02$ ), 피험자들이 평정한 표적인물의 "가족계획"에 대한 반대추정치는 기저율의 차이가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기저율은 '가족계획반대' 비율을 75.5%-24.5%로 약 50%정도의 차이를 두고 조작했으나 기저율의 효과가

나타난 불일치조건인 중립지향인물의 경우에도, 중속변인인 포적인들의 가족계획반대 추정치가 52%-40%로 약 12% 정도의 차이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중립지향인물의 조각이 미숙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립지향인물은 가족계획에 대해 애매한 특성을 지닌 인물로서(이석재, 1987), 가족계획에 찬성하는 특성과 반대하는 특성을 모두 지닌 사람으로 기술되었다. 이는 자극인물이 가족계획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으나, 피험자들이 그 포적인들의 어떤 측면(가족계획에 반대하는 태도이거나 찬성하는 태도)에 가중치를 두어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포적인들이 가족계획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자들은 중립지향인물의 가족계획반대 특성을 판단에 대한 자신의 판단결과를 비교적 높게 (67.15) 평정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두번째 가능성은 사람들이 중립지향인물과 같이 극히 애매한 태도를 지닌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도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보다는 자신의 판단도식을 따구 사용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아주 애매한 경우는 판단을 보류한 채 다른 판단기준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인지적 구두쇠(Taylor, 1981)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판단에 이용한 도식은 자신이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거쳐 경험적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더 신뢰하고 자주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도식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판단에 대해 더 확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 2와 3은 Reeder와 Brewer(1979)가 주로 귀인 판단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류한 3가지 도식들(부분제한적 도식, 위계제한적 도식, 완전제한적 도식) 중의 하나인 위계제한적 도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실험 2에서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의 비대칭성을, 실험 3에서는 능력

행위에 대한 판단의 비대칭성을 기준을의 사용여부로써 입증했다. 실험결과들은 정보들과 도식간에 부합이 잘 이뤄지는 경우(비도덕적 행위, 성공행위)는 기준을이 판단에 잘 사용되지 않았으며 정보들과 도식간의 부합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덕적 행위, 실패행위)는 판단시에 기준을이 사용된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또한 부합이 이뤄진 경우에는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정도가 부합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실험 2에서는 지지되었으나, 실험 3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위계제한적 도식이 가장 잘 맞는 경우가 실험과 같은 능력의 판단임을 고려할 때 실험 3의 확신도 평정결과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이후에 언급하게 될 실험 2와 실험 3의 몇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연구는 기준을사용에 대한 몇가지 흥미있는 설명들을 보여 주었다. 첫째, 많은 연구들(예: Bar-Hillel, 1981)이 기준을이 판단에 사용되는 조건들을 알아 보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조건들을 나열하려면 그 종류가 매우 많을 것이며, 연구자들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나열하는 대신에, 가상적인 경로모형으로 이들 조건들을 하나의 모형에서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 판단자극이 자신의 판단도식과 부합되는 경우는 거의 기준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은 판단자의 의식속에 때로는 명시적으로(explicitly), 때로는 암시적으로(implicitly)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암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우리가 우리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요청받게 되면, "그냥 그럴 것 같다", "애감이 그런 것 같다" 등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둘째로 본연구는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규범적 정보인 기준을을 사용할 판단보다는 자신의 도식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 더 확신하는 이유에 대한 조명을 해 주었다는 점이다.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다룬 연구들이 몇몇 있으나(예: Ginosar, et al., 1980) 이런 연구들에서는 확신의 정도에 대한 조건

간 차이를 언급한 예언의 근거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본연구에서, 판단결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인(주로 낯선 실험자)이 제공한 판단기준(기저율)을 사용할 때보다 자신의 도식을 사용한 판단을 더 신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타인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그 격차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새책로, 우리는 (적어도 객관적인) 판단기준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도식만을 사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의 판단결과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애매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판단기준들을 찾아야 하고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도식에 근거한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판단에 대한 "주관적 확신"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도식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애매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교적 자신있게 판단하도록 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본연구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첫째로 본연구(실험 2와 3)에서, 기저율을 확률치(%)로 제시하고 반응판단은 평정치(11점 척도, -5 - +5)를 얻었다는 점이다. Kahneman 등(1973)의 연구이래로 기저율이 판단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다룬 연구들은 종속측정치인 판단도 기저율과 같은 단위인 확률추정치(%)로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실험 1에서는 종속측정치를 확률로 하였으나 실험 2와 3에서는 행위자의 속성이나 능력의 정도에 대한 평정치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했다. 이는 McGraw의 연구(1987)에서 확률추정치와 특성평정치의 두 종속변인간에 차이가 없이 같은 결과를 보여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귀인연구에서 사용하는 합의성 정보를 기저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 확률판단치와 특성평정치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McGraw(1987)는 두가지 종속측정치를 모

두 사용했으나 본연구에서는 평정치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률추정치를 사용했을 때 본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판단에서의 기저율 사용여부를 다룬 여러 연구결과들과 본연구의 결과들을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실험 2와 3의 근거가 된 Reeder와 Brewer(1979)의 위계제한적 도식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도식이라는 점이다. 물론 본연구의 결과로 이러한 도식의 존재가능성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기저율의 사용여부로서 이뤄진 검증일 뿐이다. 이러한 도식을 기저율연구에 사용하기 이전에 그것의 실존 여부를 다룬 귀인연구의 맥락에서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 도덕적-비도덕적 행위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여부로서, 능력행위는 "운전 면허의 취득"여부로서 조작했다. 본연구의 결과들이 일반성을 지니려면 여러 다양한 행위들을 다룬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재홍 (1988). 정보와 도식간의 부합여부가 판단에서의 기저율사용에 미치는 효과. 1988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한국심리학회편 (pp.215-224).
- 이석재 (1987). 고정관념과 기저율간의 일치-불일치가 기저율효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미발표).
- 차재호 (1986). 귀인이론. 사회심리학의 전개와 방향. 제 5회 한국심리학회 동계 연수회, 한국심리학회편(pp. 79-110).
- Ajzen, I. (1977). Intuitive theories of events and the effects of base rate information

- on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03-314.
- Bar-Hillel, M. (1980). The base-rate fallacy in probability judgment, *Acta Psychologica*, 44, 211-233.
- Borgida, E., & Brekke, N. (1981). The base-rate fallacy in attraction and prediction. In J. H. Harvey, W. Ickes, & R. F. Kidd(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3, pp. 63-95). NJ: LEA.
- Ginosar, Z., & Trope, Y. (1980). The effect of base rate and individuating information on about another per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28-242.
- Hamilton, D. L., & Zanna, M. P. (1972). Differential weighting of favorable and unfavorable attributions in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6, 204-212.
- Kahneman, D., & Tversky, A. (1973). On the psychology of prediction. *Psychological Review*, 80, 237-251.
- Kelley, H. H. (1973).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22, 107-128.
- McArthur, L. Z. (1972). The how and what of why: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171-193.
- McArthur, L. Z. (1976). The lesser influence of consensus than distinctiveness information on causal attribution: A test of the person-th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733-742.
- McGraw, K. M. (1987). Outcome valence and base rate: The effect on mor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5, 58-75.
- Nisbett, R. E., & Borgida, E. (1975). Attribution and the psychology of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932-942.
- Nisbett, R. E., Borgida, E., Crandall, R., & Reed, H. (1976). Popular induction: Information is not necessarily informative. In J. S. Carroll & J. Payne(Eds.),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pp. 113-133). Hillsdale, NJ: Erlbaum.
- Reeder, G. D., & Brewer, M. R. (1979). A schematic model of dispositional attribu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86, 61-79.
- Taylor, S. E. (1981). The interface of cognitive and social psychology. In J. H. Harvey(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J: Erlbaum.
- Tversky, A., & Kahneman, D. (1980). Causal schema in judgments under uncertainty. In M. Fishbein(Ed.), *Progress in social psychology*(pp.49-72). Hillsdale, NJ: Erlbaum.
- Zukerman, N. (1981). Use of consensus information in prediction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63-171.



## The Effects of Base-rate on Social Judgments: Roles of Causal Schema

Jae-Hong Ko

Kyung Nam University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base-rate on judgments upon characteristics of target person. In experiment 1, subjects read a manipulated base-rate information and four descriptions for each target persons, and judged his attitude for family planning campaign. Subjects judged the target person's attitude according to only the description about him regardless of base-rate information when a description comprised of consistent informations. And subjects in this condition were confided to their judgment than that of the other condition. But subjects judged the target person's attitude according to base-rate when a description comprised of inconsistent informations. Experiment 2 and 3 were designed to test hypothesis that base-rate information impacts on subject's judgment only when subject has not a causal schema corresponding to the given information, but it cannot impact on judgment when subject has a causal schema. In exp. 2, subject's judgment and confidence were impacted by base-rate in judgment of moral act, but not in immoral act. In exp. 3, subject's judgment and confidence were impacted by base-rate in judgment of failure outcome, but not in success outcome. Differences both in the impacts of base-rate on social judgments and in the subjects' confidence to their judgments were discussed in a hypothetical model.